

# 高麗時代 鼎形靑瓷 研究

李 溶 振\*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제작배경
- III.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
- IV.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제작시기와 용도
- V. 맺음말

## I. 머리말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의 제작경향은 徐兢이 『高麗圖經』에 기록한 것처럼 翡色을 띠는 우수한 청자가 제작되었고, 송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청자에 나타난 송대 자기의 영향은 주로 耀州窯와 汝窯, 定窯 등 북방요와 越州窯 등 남방요의 영향이고, 구체적으로는 제작기술과 기형, 장식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또한 고

\* 동국대학교 박물관 전임연구원

<sup>1</sup> 고려시대 청자에 나타난 송대 자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강경숙,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교섭」,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4); 金英媛, 「高麗磁器와 中國磁器와의 比較研究」, 『考古美術』 171·172(한국미술사학회, 1986);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鄭信玉,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任眞娥,

려시대 청자에는 북송의 자기뿐만 아니라 중국 고동기의 영향도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古銅器 鼎을 방제한 鼎形靑瓷라 할 수 있다.

중국 고동기 정을 방제한 청자가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고려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부적 요인은 고려의 예제개혁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청자 중에서 중국 고동기의 기형을 따른 것은 정형청자가 유일하며, 현재 국내외에 10여 점 이상 전하고 있다. 이들 정형청자에는 商代 후기의 정을 방제한 것과 기형과 문양의 일부를 변형시킨 것이 있지만, 문양의 표현은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정형청자는 宋에서도 제작되는데, 고려의 정형청자와는 기형과 표현방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가 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형청자에 대한 개별연구는 없는 실정이고, 보고서나 다른 연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외에 전하는 정형청자를 대상으로 정형청자가 제작되는 고려의 내부적 요인과 함께 당시 제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려시대에 어떠한 정형청자가 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송대의 정형청자, 고려시대 금속제 정형향로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제작시기와 용도를 살펴볼 것이다.

## II.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제작배경

### 1. 宋代의 禮制 개혁과 『宣和博古圖』의 편찬

宋 朝廷은 宋初부터 禮制確立, 구체적으로는 종묘제의를 확립하기 위해 '再現三代'의 회복에 힘썼다. 宋 太祖 建隆 3年(962) 聶崇義는 『三禮圖』를 완성하였으며, 『삼례도』는 송대 예제확립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sup>2</sup> 섭송의 『삼례도』는 古器物圖가 실린 최초의 예서였지만, 三代의 기물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고, 三代의 古銅器 수집과 仿古銅器를 통한 예제의 개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송대의 예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었던 인물은 宋 徽宗이었다. 宋 徽宗은 大觀 元年(1107) 尙書省에 議禮局을 설치하였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朴芝英, 「高麗 陽刻靑磁 研究」(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sup>2</sup> 陳芳妹,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 10期(臺北: 國立臺灣大學, 2001), pp.39-44.



도 1 『宣和博古圖』  
『古色—十六至十八世紀藝術  
의仿古風』 도판 II-05에서  
전재(국립고궁박물관, 2003)

고,<sup>3</sup> 大觀 2年(1108)에는 薛昂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하의 고동기를 수집하였다.<sup>4</sup> 휘종은 수집한 고동기와 『삼례도』를 바탕으로 政和 3년(1113) 『五禮新儀』를 편찬하였고, 수집된 고동기는 內府 및 秘閣三館에 나누어 소장하였다. 휘종은 수집된 고동기를 바탕으로 삼대의 재현을 위한 고동기 방제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휘종 政和 6년(1116)에 주조한 政和 鼎이라고 할 수 있다.

휘종은 수집한 고동기를 呂大臨의 『考古圖』를 참고로 『宣和博古圖』를 편찬하였다.<sup>5</sup> 『宣和博古圖』는 宣和年間(1119-1125)에 휘종의 명에 의해 王黼이 편찬한 서적으로 20가지로 기형을 분류하고, 모두 839건을 수록하였다도<sup>6</sup>.<sup>6</sup> 또한 기물의 도상과 명문을 수록하고 크기, 용량, 출토지, 소장자의 이름도 수록하였다. 『선화박고도』는 『三禮圖』의 기물도뿐만 아니라 漢代 이후 잘못 인식하고 있던 古器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sup>7</sup> 이처럼 『선화박고도』는 송대의 예제 개혁 과정에서 수집된 고동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청동기 도록으로, 송대뿐 아니라 송대 이후의 문인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8</sup>

<sup>3</sup> 『宋史』卷20本紀第二十二徽宗二大觀元年正月條, “庚子, 復置議禮局於尚書省.”

<sup>4</sup> 『宋史』卷98志第五十一禮一, “初, 議禮局之置也, 詔求天下古器, 更制尊, 爵, 鼎, 彝之屬.”

<sup>5</sup> 『考古圖』는 宋 哲宗 元祐 7年(1092년)에 呂大臨이 편찬한 청동기 도록이다. 『고고도』에는 銅器와 玉器 224件이 수록되어 있고, 그중 商周時代 청동기 148건, 진한대의 동기 63건과 옥기 13건이 기록되어 있다.

<sup>6</sup> 張臨生은 『선화박고도』가 宣和 5년(1123)에서 宣和 7년(1125) 사이에 휘종의 명으로 王黼의 지휘 아래 편찬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張臨生, 「宋仁宗墓裡的寶藏」, 『故宮文物』 197(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99), p.17.

<sup>7</sup> 張臨生, 위의 논문, pp. 16-17.

<sup>8</sup> 『宣和博古圖』는 중국의 고동기 감상과 방고동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원대

## 2. 고려의 예제 개혁과 『선화박고도』의 유입

宋에서 예제 개혁이 시행되는 동안 고려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제가 개혁되고 새로운 예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예제는 국초에 일률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成宗을 시작으로 睿宗, 毅宗대에 걸쳐 진행되었고, 최종 완성은 의종대에 편찬된 『詳定古今禮』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제 형성 과정에는 송의 예제도 수용되었다.

고려시대 예제 개혁의 시작은 성종대라고 할 수 있다. 성종은 유교적 예제를 중시하였고, 성종 2년(983)에 환구제, 적전친경, 신농제를 시행하였고,<sup>9</sup> 같은 해에 제례와 관련된 太廟堂圖, 社稷壇圖, 文宣王廟圖,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송으로부터 들여왔다.<sup>10</sup> 또한 성종 7년(988)에는 五廟制에 의거한 종묘제도를 정하고, 성종 8년(989)년에 태묘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성종 11년(992) 11월에 태묘를 완성하였다.<sup>11</sup>

睿宗 8년(1113)에는 예제개혁을 위한 기구로 禮儀詳定所를 설치하여 고려의 예제를 개혁하였고, 예의상정소에서 정비된 예제는 의종대에 이르러 『상정고금례』의 편찬으로 완성된다.<sup>12</sup>

고려는 예제개혁 과정에서 송의 예제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였고, 의례와 관련된 제기도 함께 수용하였다. 북한의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에서 출토된 淳化三年(992)銘 청자제기 편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淳化四年(993)銘 壺는 명문에 따라 태조 왕건의 太廟 第一室과 太廟 第四室의 제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sup>도2, 2-1</sup>. 원산리 출토 청자제기 편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淳化四年銘 壺는 제기인 豆와 壺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sup>13</sup> 이 청자제기들은 962년에 편찬된 『삼례도』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도3, 3-1</sup>.<sup>14</sup> 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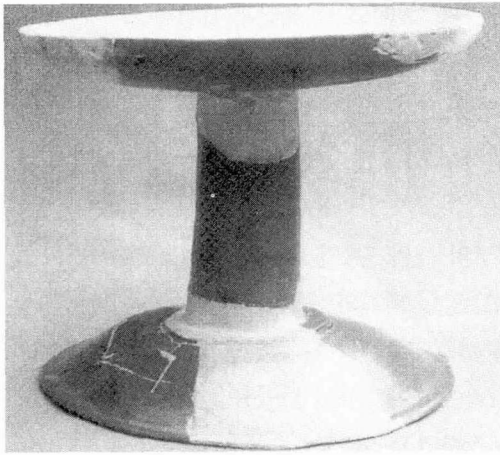
부터 청대까지 계속 간행되었고, 명대에는 7개의 판본이 있었다. 이 책은 회화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玩古圖〉나 〈博古圖〉 등의 고동기 묘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許雅惠, 「明代末期古銅器知識與仿古銅器」, 『古色—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3), p.206. 『선화박고도』는 조선 후기의 문집인 朴趾源의 『燕巖集』과 俞晚柱의 『欽英』에도 언급되어 있다.

<sup>9</sup> 『高麗史』 卷59 禮志13 吉禮大祀 圜丘, “成宗二年正月辛未王親祀圜丘祈穀醴以太祖祈穀之禮始此.”; 『高麗史』 卷62 禮志16 吉禮中祀 籍田, “成宗二年正月乙亥王親耕籍田祀神農醴以后稷籍田之禮始此.”

<sup>10</sup> 『高麗史』 卷3 成宗二年 八月, “甲子博士任老成至自宋獻太廟堂圖一鋪并記一卷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文宣王廟圖一鋪祭器圖一卷七十二賢贊記一卷.”

<sup>11</sup> 『高麗史』 卷61 禮志15 諸陵, “成宗七年十二月始定五廟八年四月始營太廟. 十一年十一月太廟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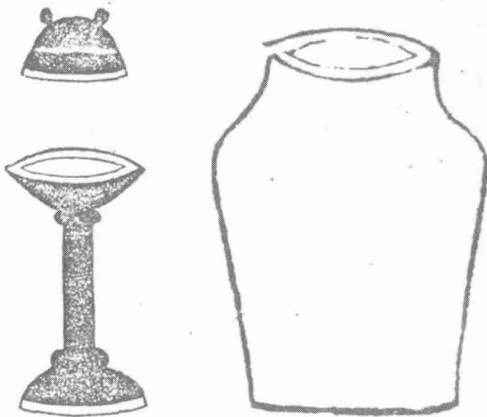
<sup>12</sup> 김철웅, 「고려 전기 祀典의 형성 과정」, 『사학지』 37(단국사학회, 2005), p.278.



도 2 <淳化三年銘 청자 祭器>, 992년,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출토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도판 115-1에서 전재(시공사, 2005)



도 2-1 <淳化四年銘 청자 壺>,  
993년, 높이 35.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판 42에서 전재  
(이화여자대학교, 1999)



도 3 『三禮圖』의 豆(좌)  
도 3-1 『三禮圖』太尊(우)

<sup>13</sup> 장남원, 「高麗時期 京畿地域의 窯業性格에 關한 試考」,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경기도박물관, 2003), pp.59-64.  
<sup>14</sup> 謝明良, 「記唐恭陵哀皇后墓出土의 陶器」, 『故宮文物』 279(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6), pp.78-79.

化銘 청자제기 제작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례도』의 유입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文宗 13년(1059) 李靖恭이 새로 새긴 『삼례도』 54판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sup>15</sup> 이 기록은 『삼례도』가 문종 13년 이전에 고려에 들어와 있었고, 1059년에 새로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례도』가 고려시대 제기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에는 의례에 사용하는 제기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文宗代(1046-1082) 설치한 祭器都監이 그것이다. 제기도감은 3품인 2명의 使와 5품인 副使, 6명의 判官, 2명의 記事, 2명의 記官, 2명의 書者로 구성되어 있었고, 왕실 제기의 수급을 담당하였다.<sup>16</sup> 또한 仁宗代(1122-1146)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는 都祭庫에서 제기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다.<sup>17</sup> 그러므로 왕실 제기의 수급은 제기도감에서, 관리는 도제고에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송의 제기를 참고로 제기를 제작하였고, 제기의 수급을 담당할 제기도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에서 제작한 제기를 직접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宋史』에는 徽宗 政和 7년(1117) 3월 고려에 송의 제기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18</sup> 이것은 『고려사』에는 없는 기록으로, 송에서는 12개의 籩과 豆, 4개의 簠와 簋, 1개의 登, 2개의 銅과 鼎, 1개의 壘洗와 2개의 尊을 고려에 보냈다. 이 제기의 숫자는 고려의 吉禮大祀에 사용하는 12개의 籩과 豆, 각각 4개의 簠와 簋 등의 숫자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송에서는 고려의 길례대사에 사용할 제기를 보낸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송에서 보낸 제기는 1113년에 편찬된 『정화오례』에 따라 제작된 제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도4.4-1</sup>.

이처럼 고려는 송의 예서를 참고로 제기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에서 제작한 제기도 받아들였다. 송 휘종 政和 7년(1117) 송에서 보낸 제기를 통해 고려는 새로운 제기를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삼례도』의 경우처럼 『선화박고도』도 유입에 관한 문헌기록은 없지만, 고려의 예제 개혁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sup>15</sup>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2, “庚辰知南原府事試禮部員外郎李靖恭進新雕三禮圖五十四判.”

<sup>16</sup> 『高麗史』 卷77 百官志2 諸司都監各色 祭器都監, “文宗定 使二人三品兼之 副使五品兼之 判官六人丙科權務 吏屬記事二人記官二人書者二人.”

<sup>17</sup> 『高麗史』 卷77 百官志2 諸司都監各色 都祭庫, “有副使判官甲科權務 恭讓王三年罷.” 都祭庫는 仁宗 때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공민왕 때 太常寺에 예속시켰다가 공양왕 3년(1391)에 혁파하였다. 崔貞煥, 『譯註 『高麗史』 百官志』(경인문화사, 2006), p.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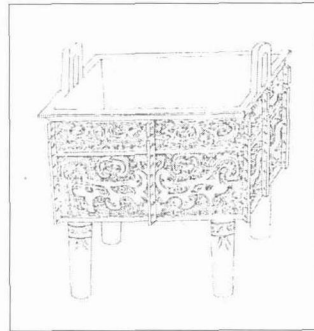
<sup>18</sup> 『宋史』 卷119 禮志16 宋 徽宗 政和七年 三月, “賜以籩豆各十二 簠簋各四 登一 銅二 鼎二 壘洗一 尊二.”

<sup>19</sup> 『高麗史』 卷60 志14 禮2 吉禮大祀 太廟 참조.



도 4 <宋政和鼎>, 높이 23.0cm,  
대만 고궁박물관(좌)  
『故宫文物』104에서 전재(國立故宮博物院, 1991)

도 4-1 <宣和尊>, 높이 29.0cm,  
북경 고궁박물관(우)  
『文物』1989-3期 흑백도판  
6-1에서 전재(文物出版社,  
1989) 3期



도 5 <도철문 方鼎形 청자>,  
높이 18.4cm,  
국립중앙박물관(좌)  
도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도 5-1 『宣和博古圖』 권1의  
<商召夫鼎>(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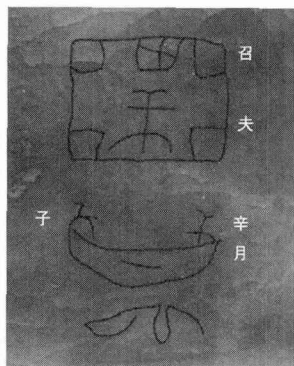
### 3. 鼎形靑瓷의 模本으로서의 『宣和博古圖』

고려시대에 제작된 정형청자 중에는 『선화박고도』에 수록된 商代의 方鼎을 모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饗饗紋 方鼎形靑瓷>는 『宣和博古圖』 권1에 수록되어 있는 <商召夫鼎>과 매우 유사하다<sup>20</sup>

먼저 크기를 보면,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높이 18.4cm이고, <商召夫鼎>은 높이 5寸9分으로, 宋尺으로 크기를 환산하면 약 18.3cm로 <도철문 방정형 청자>와 같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sup>21</sup> 다리는 <도철문 방정형 청자>와 <商召夫鼎> 모두 柱足이고, 2단의 몸체 상단에는

<sup>20</sup> 이 방정형청자는 1908년 이왕가박물관에서 일본인 近藤佐五郎에게 구입한 것으로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청자는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高麗陶器銘文』 특별전 도록에 소개되어 있다.

<sup>21</sup> 宋尺의 1尺은 30.8cm에서 32.6cm까지 크기가 다양하지만, 많은 수가 31cm에 근접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송척 1척을 31cm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박홍수, 『한·중 도량형제도사』(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p.395-404 참조.



도6 <商召夫鼎>의 명문(좌)

도7 <도철문 방정형 청자>의 명문(우)

夔, 하단에는 饗饗이 몸체 중앙의 비룡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귀는 모두 구연 위쪽에 붙은 수직귀로 되어 있다.

<상소부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기형과 문양뿐만 아니라 몸통 안쪽에 새겨진 명문도 매우 유사하다. <상소부정>은 亞字形 틀 안에 “召夫”를 새겼고, 그 아래에는 ‘子’·‘辛’·‘月’ 등의 명문을 음각하였다<sup>22</sup>. <도철문 방정형 청자>도 亞字形 틀 안에 <상소부정>의 명문인 “召夫”를 따라 새긴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의 명문도 <상소부정>의 ‘子’·‘辛’·‘月’을 똑같이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모본으로 생각되는 『선화박고도』의 <商召夫鼎>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철문 방정형 청자>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해 보면,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크기, 형태, 문양의 구성, 명문의 구성방식까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선화박고도』의 <商召夫鼎>을 모본으로 충실하게 방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sup>22</sup> 王獻, 『宣和博古圖』 卷1, 「商召夫鼎」, 文淵閣四庫全書 840, 子部 146, 譜錄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2(1983)), p.382.

<sup>23</sup> 『高麗陶器銘文』 도록에는 <도철문 방정형청자>를 <청자양각도철문방정형항로>로 소개하고 있고, 명문에 대해서는 방형의 도상 내에 ‘宀’자로 보이는 명문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파도와 배를 탄 인물의 도상이 그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高麗陶器銘文』(국립중앙박물관, 1992), p.20 참조.



도 8 <남송 관요 정형청자>, 남송,  
높이 13.7cm, 일본 靜嘉堂  
『世界陶磁全集』12 도판 76에서 전재  
(小學館, 1977)



도 8-1 杭州 老虎洞 南宋官窯址 출토  
<정형청자> 높이 13.0cm,  
남송관요박물관  
『南宋官窯論文集』p.202 도판  
2에서 전재(北京: 文物出版社,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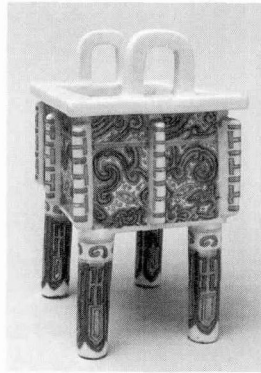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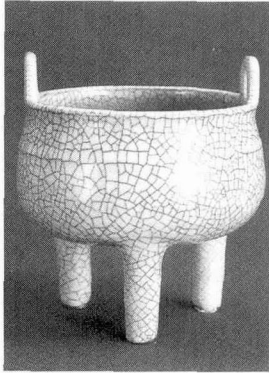
### III.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

고려시대에 제작된 정형청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본을 토대로 중국 고동기 정(鼎)의 기형과 문양을 방제한 정형청자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인들의 기호에 맞게 기형과 문양을 변화시킨 고려화된 정형청자이다. 이 두 가지의 정형청자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제작되고 어느 것이 후에 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방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변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제한 정형청자를 먼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청자는 고려에서뿐만 아니라 宋代에도 제작되었는데, 송대의 정형청자는 고려의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를 다루기에 앞서 송대의 정형청자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정형청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宋代의 정형청자

송대의 대표적인 정형청자로 南宋 官窯의 정형청자를 들 수 있다. 일본 靜嘉堂 소장(南宋官窯 鼎形靑瓷)와 浙江省 杭州 老虎洞 남송관요지에서 출토된 <정형청자>가 대표적이다(도 8, 8-1). 이들 관요의 정형청자는 짧은 柱足에 납작한 원통형의 몸체와 수직귀로 이루어져



도 9 <哥窯 鼎形청자>, 南宋, 높이 17.3cm,  
북경 고궁박물관(좌)  
『中國文物精華大辭典』4 陶磁卷 p.262  
도판 303에서 전재(上海辭書出版社,  
1998)

도 10 <五彩獸面紋 正형향로>, 明 萬曆年間  
(1573-1619), 높이 12.9cm,  
섬서성박물관(우)  
『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陶磁(下)  
도판 133에서 전재(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있다. 짧은 주족의 상단에는 비름이 작게 표현되어 있고, 몸체에는 문양 없이 상단에만 두 줄의 양각선이 있으며, 다리와 일직선상에 비름이 표현되어 있다. 항주 노호동 남송관요지에서도 중국 고동기를 방제한 청자들이 발굴되었는데, 주요한 기형으로는 鼎을 비롯해 鬲, 簋, 尊, 觚 등이 있다.<sup>24</sup> 항주 노호동 출토 정형청자는 기형의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일본 靜嘉堂 소장 정형청자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송 관요의 정형청자는 기면에 문양 없이 비름만을 표시하고 기형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항주 노호동 남송관요지에서 출토된 고동기를 방제한 다른 기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송대의 문양이 없는 정형청자의 특징은 哥窯의 정형청자에서도 볼 수 있다. 북경 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哥窯 정형청자>는 기형은 남송관요의 정형청자와 유사하지만, 다리와 몸체에 있는 비름은 생략되어 있고, 기면에 빙렬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도9</sup>. 이처럼 송대의 정형청자는 남송대에 주로 제작되었고, 고려의 정형청자와는 달리 三足과 兩耳라는 鼎의 기형적 특징만 유지하고 있을 뿐 문양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sup>25</sup> 따라서 고려와 송의 정형청자는 기형과 문양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고, 고려화된 정형청자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중국에서 고려의 정형청자처럼 고동기 鼎의 문양과 기형을 방제한 자기는 明代 萬曆年間(1573-1619)의 古銅器 鑑賞과 仿古銅器와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고려가 앞서고 있다<sup>도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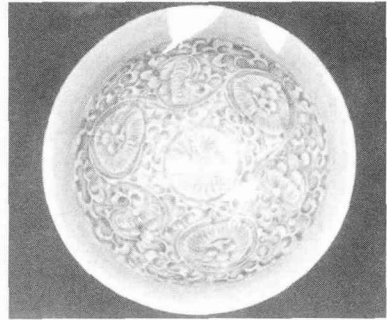
<sup>24</sup> 杭州市文物考古所,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02, 2期).

<sup>25</sup> 矢部良明, 『中國陶磁の八千年』(東京: 平凡社, 1996), pp.181-183.

## 2. 고려의 정형청자

### 1) 仿製한 정형청자

仿製한 정형청자는 중국 고동기 정(鼎)의 문양과 기형을 청자로 만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方鼎을 방제한 것도 있고, 圓鼎을 방제한 것도 있다.<sup>26</sup> 방제한 정형청자는 중국 청동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商代後期の 鼎을 토대로 제작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선화박고도』를 모본으로 제작하였기



삽도 1 <耀州窯 菊唐草紋碗>

때문이다. 방제한 정형청자에는 상대후기 鼎의 기형과 문양을 가진 것과 다리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지만 기형과 문양이 상대후기의 鼎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1)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 청자

##### 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饗饗紋 方鼎形 청자도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방형의 태토판을 붙여 몸체를 만들고, 다리와 귀는 별도로 제작하여 붙인 것으로, 앞서 살폈듯이 『선화박고도』의 <商召夫鼎>을 똑같이 방제한 것이다. 주족의 다리와 방형의 몸체, 수직귀로 구성되어 있으며, 柱足の 다리 상단에는 花紋, 하단에는 蟬紋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sup>27</sup> 몸체에는 중앙의 扉棱을 중심으로 바탕문양으로는 뇌문, 주문양으로 상단에는 夔紋, 하단에는 饗饗紋을 압출양각으로 시문하고 있다. 압출양각 기법은 중국의 북방지역 여러 窯場에서 많이 사용되며, 점차 중국 전역으로 유행하게 되는 장식기법의 하나로 북송대 耀州窯에서 가장 발달한다(삽도 1). 압출양각기법은 대체로 북송 중기 이후부터 북송 만기에 이르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진 용운리 10-I층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10-II호 <가>유형 시기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8</sup>

<sup>26</sup> 중국 청동기에서 方鼎은 상대 중기부터 서주 중기까지 나타나는 기형으로 圓鼎에 비해 제작되는 기간도 짧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명칭의 경우도 방정은 方鼎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만, 원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sup>27</sup> 상대후기의 鼎은 柱足の 다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의 정은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마름모 형상에서 尖足, 柱足으로 변화하며, 다리에는 음각으로 蟬紋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李溶振, 「中國 青銅器 鼎 研究」, 『實學思想研究』 14(母岳實學會, 2000), p.401 참조.

이렇게 압출양각으로 시문된 <도철문 방정형청자>의 문양 구성방식은 상대후기 정에 나타나는 특징인 뇌문을 바탕문양으로 하고 주문양을 뇌문으로부터 돌출시키는 문양구조, 즉 二層花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sup>29</sup> 이러한 문양구조는 대부분의 고려시대 정형청자에 적용되고 있다. 귀는 구연에 붙은 수직귀로 되어 있으며, 방형의 몸체와 어울리게 방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

## (2)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 ① 日本 大阪 東洋陶磁美術館 소장 饗饗紋 圓鼎形 청자도<sup>1130</sup>

日本 大阪 東洋陶磁美術館 所藏의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높이 17.0cm로 다리, 몸체, 귀로 구성되어 있다. 다리와 수직귀는 별도로 성형하여 붙였고, 몸체는 반원형의 문양들을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주족의 다리는 두 줄의 음각선으로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여, 상단에는 花紋, 하단에는 매미와 같은 문양을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몸체의 문양은 중앙의 비를 중심으로 바탕문양에는 뇌문, 주문양으로 夔紋과 饗饗紋을 압출양각으로 시문한 二層花의 구성을 하고 있다.

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도철문 원정형 청자>와 유사한 작품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sup>도12.31</sup>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동양도자미술관의 소장품과 제작기법, 기형, 문양이 동일

<sup>28</sup>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국립중앙박물관, 1997), pp.214-223; 장남원, 「高麗 中期 壓出陽刻靑瓷의 性格」, 『미술사학연구』 242·243(한국미술사학회, 2004), pp.98-114 참조.

<sup>29</sup> Max Loehr는 그의 저서인 *Ritual Vessels of Bronze Age China*에서 상대 청동기의 문양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기에는 청동기에 얇은 부조에 의한 장식이 나타나고, 2기에는 띠무늬의 부조로 된 장식이 나타나며, 3기에는 치밀하고 유창한 선이 나타난다. 4기에는 주문양이 보조문양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5기에는 주문양이 바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떠오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Max Loehr, *Ritual Vessels of Bronze Age China*(New York, 1968).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문양이 보조문양으로부터 분리되어 표현되는 문양구조를 二層花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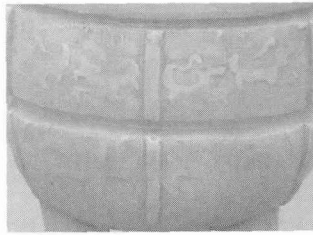
<sup>30</sup> 1982년에 출판된 『東洋陶磁의 展開』 도록에는 이 청자를 <靑磁印花文鼎>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출판된 『東洋陶磁의 展開』 도록에는 <靑磁印花文鼎形香爐>로 명칭이 바뀌어 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기형을 중시한 명칭에서 기형과 용도를 같이 고려한 명칭으로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형청자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형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용도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에서는 향로를 부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형과 용도를 포함한 정형향로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東洋陶磁의 展開』(大阪: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2), p.170; 『東洋陶磁의 展開』(大阪: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99), p.100.

<sup>31</sup> 간송미술관 소장 도철문 정형청자는 『潤松文化』 31, 도판 10에 소개되어 있다. 『潤松文化』 31 靑磁(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6).



도 11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7.0cm, 일본 大阪 東洋陶磁美術館 (좌)  
『東洋陶磁の展開』 도판 75에서 전제(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도 12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3.9cm, 간송미술관(우)  
『潤松文化』 31 도판 9에서 전제(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6)



삽도 2 동양도자미술관과 간송미술관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문양 비교

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은 차이가 있다. 도철의 경우, 동양도자미술관의 것은 도철의 윤곽선이 둥글게 표현되었지만,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도철의 윤곽선을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夔의 표현도 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은 다리가 하나인 夔의 도상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夔의 꼬리가 길어지고 형태도 명확하지 않다(삽도 2). 또한 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주족의 다리 상부에는 음각으로 蟬紋이 나타나지만,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생략되어 있어 문양의 생략과 도식화가 이루어진 단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도 13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3.1cm, 국립중앙박물관  
『世界陶磁全集』 18 도판 138에서 전제(小學館, 1978)

## ②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饗饗紋 圓鼎形 청자도 13

방제 단계의 정형청자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짧고 장식화된 다리와 반원형 수직귀이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에는 이러한 변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동양도자미술관과 간송미술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다리는 柱足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1.2cm, 일본 出光美術館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 5 出光美術館 도판13에서 전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98)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틀로 찍어낸 雲形의 다리이다.<sup>32</sup> 이러한 형태의 다리는 雲形 이외에도 動物形 등이 있으며 개별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귀도 장방형 수직귀에서 반원형 수직귀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짧은 다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형적인 변화로 생각된다. 문양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문양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청자요지에서 출토되는 압출양각 청자들은 같은 문양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母範을 통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문양틀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3</sup>

③ 日本 出光美術館 소장 饕餮紋 圓鼎形 청자도 14

일본 出光美術館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방제 단계의 기형과 문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앞에서 보았던 작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문양의 경우, 몸체 상단의 夔는 꼬리가 매우 길어져 동물의 꼬리와 같고, 다리도 1개가 아니라 앞다리가 2개인 것도 있고, 뒷다리가 2개인 것도 있어 夔의 도상적 특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도철의 표현도 동양도자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도철의 눈과 눈썹이 명확한 반면, 出光美術館 소장품은 도철의 눈과 눈썹을 포함한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기형에 있어서도 몸체는 2단으로 되어 있으나 상단이 좁고 하단이 넓으며, 수직귀도 반원형이 아닌 방형이며, 바깥쪽으로 외반되어 있다. 出光美術館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기형적 특징은 남아 있지만, 문양의 특징이 점차 사라지는 단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삽도 3).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 요지에서는 동양도자미술관과 간송미술관 소장품과 같은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도 15, 도 15-1).<sup>34</sup> 강진 용운리 10호-II층 <다> 유형에서는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몸체 하단편과 주족의 다리편이 출토되었고, 강진 사당리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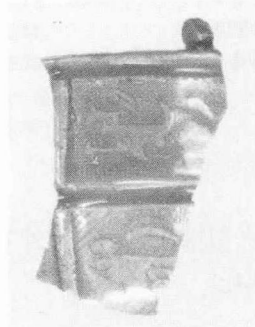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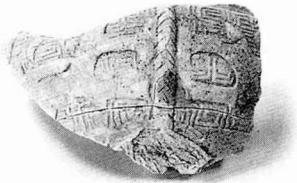
<sup>32</sup> 『世界陶磁全集』 18 高麗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다리를 雲形으로 설명하고 있다.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學館, 1978), p.273.

<sup>33</sup> 박지영, 앞의 논문, p.15.

<sup>34</sup>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一圖版編』(국립중앙박물관, 1997), pp.464-465; 『강진의 청자요지』(해강도자미술관, 1992), p.70.



삽도 3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出光美術館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문양 비교



도 15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  
방제한 〈도철문 정형청자 편〉(좌)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  
告書-圖版編』 도판 790-1에서  
전재(국립중앙박물관, 1997)

도 15-1 강진 사당리 출토 방제한  
〈도철문 정형청자편〉(우)  
『世界陶磁全集』 18  
도판 235에서 전재  
(小學館, 1978)

도철의 일부와 夔가 남아 있는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몸체편이 출토되었다. 이것을 통해,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제작지가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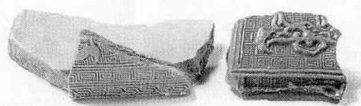
동양도자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의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 국립중앙박물관과 出光美術館의 방제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같은 방제 단계의 작품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기형과 문양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본을 바탕으로 한 방제에서 문양과 기형의 특징만을 갖춘 방제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방제단계에서 나타난 다리의 변화는 대부분의 고려화된 정형청자에도 반영되고 있다.

## 2) 高麗화된 정형청자

고려화된 정형청자는 방제단계의 정형청자와는 다르게 고려인들이 선호하는 기형과 문양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즉 고려화된 정형청자는 방제단계에서 모본으로 삼은 『선화박고도』에 수록된 상대후기 鼎의 모습이 아니라 기형과 문양을 고려의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고려화된 정형청자는 기형에 따라 方鼎形청자와 圓鼎形 청자로 나눌 수 있다. 기형에 있어서 고려화된 방정형 청자는 방제한 방정형 청자와는 다르게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이고, 원정형 청자도 저부가 둥근 고복형에서 원통형으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문



도 16 고려화된 <도철문 방정형 청자>, 높이 13.7cm,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청자』 도판 7에서 전재 (국립진주박물관, 1991)



도 17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방정형 청자편>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圖版編』 도판 783에서 전재 (국립중앙박물관, 1997)

양에 있어서는 도철과 기가 표현되고 있지만, 방제단계의 문양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도철과 기 이외에 다른 문양도 나타난다.

(1) 고려화된 方鼎形 청자

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饗饗紋 方鼎形 靑瓷 도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방형의 태토판을 붙이고, 음각된 문양들을 사용해 압출양각으로 문양을 시문했지만, 방제한 도철문 청자와는 기형과 문양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먼저 기형을 보면, 방제한 방정형 청자는 방형의 몸체에 주족이 붙어 있지만, 고려화된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방형의 몸체에 獸形 다리가 붙어 있다. 문양에 있어서도 방제한 작품은 몸체 중앙에는 비룡을 중심으로 바탕문양으로 뇌문, 주문양으로 夔紋과 饗饗紋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했지만, 이 작품은 몸체에는 비룡 대신 방형틀 안에 뇌문을 바탕문양으로 도철을 주문양으로 한 이중화의 구조이고, 목에서 한단 안쪽으로 꺾인 부분에는 기문을 주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이 고려화된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강진 용운리 10호-II층 <다> 유형에서 출토되고 있어 생산지가 강진임을 알 수 있다<sup>도17</sup>.

② 日本 大阪 東洋陶磁美術館 소장 夔紋 方鼎形 靑瓷 도 18<sup>35</sup>

日本 大阪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도 방형의 태토판을 붙이고, 음각된 문양들을 사용해 압출양각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夔紋 방정형 청자>는 그동안 饗饗紋 또는 龍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 청자에는 도철이나 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몸체



도 18 고려화된 〈夔紋 방정형 청자〉,  
높이 11.9cm,  
일본 大阪 東洋陶磁美術館  
『東洋陶磁の展開』 도판 76에서 전재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도 19 고려화된 〈夔紋 방정형 청자〉,  
높이 11.6cm, 호림박물관  
『호림박물관 소장품선집-청자 I』  
도판 63에서 전재  
(호림박물관, 1991)

중앙에 다리가 하나인 夔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夔紋 방정형 청자로 불러야 한다.

이 작품은 다리와 몸체, 귀로 구성되어 있다. 다리는 틀로 찍은 雲形의 다리이고, 몸체는 3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단에는 圓紋과 渦紋을 교대로 시문하였고, 중단에는 바탕문양으로 鷄문, 주문양으로 夔紋을 표현한 이중화의 문양구조이다. 중단의 양쪽 모서리에는 花紋이 시문되어 있고, 하단에는 鷄문만이 시문되어 있다. 구연부에는 측면에 鷄문, 윗면에는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고, 방형의 수직귀 바깥면에는 鷄문이 시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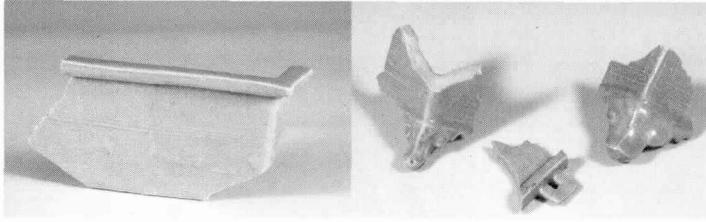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는 호림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호림박물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는 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과 기형과 문양은 동일하지만, 구연과 귀의 두께가 얇고, 다리는 獸足이며, 문양의 선명함이 떨어진다<sup>도19</sup>. 문양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호림박물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의 경우 여러 번 쓴 틀을 사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는 보령 元山島에서도 발견되었다<sup>도20</sup><sup>36</sup>. 몸체와 귀, 다리편이 나왔고, 문양은 앞에서 다루었던 작품들과 동일하며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송중에 좌초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진 용운리 10호-II층과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에서도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sup>도21, 21-1</sup><sup>37</sup>.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편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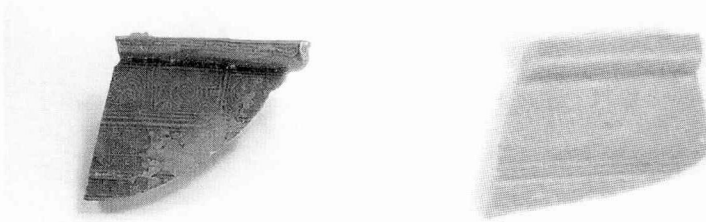
<sup>35</sup> 『東洋陶磁の展開』 도록에는 이 청자를 〈靑磁印花龍文方形香爐〉로 언급하고 있다. 이 청자의 기형은 방정의 기형을 하고 있고, 문양은 용문이 아닌 夔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靑瓷夔紋方鼎形香爐〉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洋陶磁の展開』(大阪: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99), p.101.

<sup>36</sup> 문화재청 보도자료, 「고려의 예술혼, 그 경이로운 세계와의 조우-보령 원산도 수증발굴조사 성과」(2006. 5. 9).

<sup>37</sup>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pp.464-465; 『康津의靑磁窯址』, p.281 참조.



도 20 보령 원산도 출토  
〈夔紋 방정형 청자〉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6. 5. 9)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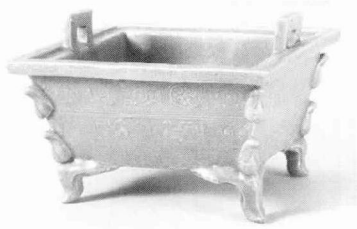
도 21 강진 용운리 10-II층 출토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편〉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  
書—圖版編』도판 787에서 전재  
(국립중앙박물관, 1997)

도 21-1 강진 사당리 7호 요지 출토 고려화  
된 〈기문 방정형 청자편〉  
『康津의靑磁窯址』p.281에서  
전재(海剛陶磁美術館, 1992)

연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강진 사당리 7호 요지 출토편도 구연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구연과 몸체 상단에 뇌문, 원문과 와문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편들은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의 제작지가 강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고, 고려시대 강진에서는 방제한 정형청자와 고려화된 정형청자를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夔紋 方鼎形 청자도<sup>22</sup>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는 앞에서 살핀 동양도자미술관과 호림박물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와 기형과 문양은 같지만, 구연을 포함한 세부 표현은 차이가 있다. 차이를 보면, 모서리에는 扉稜을 변형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미형의 장식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장식적 요소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몸체 구획선의 표현에 있어서도 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은 굵은 양각선을 사용하였지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두 줄의 가는 양각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연부에는 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뚜껑을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도 동양도자미술관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의 것과는 다른 虎足이다.<sup>38</sup>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는 앞의 두 작품보다 문양



도 22 고려화된 <變紋 방정형 청자>, 높이 11.8cm, 보물 1026호,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명품도록』 I 도판 19에서 전재(호암미술관, 1996)



도 22-1 강진 사당리 출토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편> 『강진 고려청자 500년』 도판 77에서 전재(강진청자 박물관, 2006)

이 선명한데, 이것은 제작 당시에 상대적으로 사용 횟수가 적은 문양틀을 사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강진 사당리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기문 방정형 청자>와 같은 기문 방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도 22-1. 이 청자편은 귀를 제외한 몸체와 다리, 모서리 장식이 잘 남아 있고, 세부표현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과 같다. 모서리 장식이 있는 기문 방정형 청자는 현재까지 강진 사당리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고려화된 기문 방정형 청자를 바탕으로 사당리 요지에서 고안한 장식으로 추정된다.

## (2) 고려화된 圓鼎形 청자

고려화된 정형청자의 다른 종류로 圓鼎形 청자가 있다. 여기에는 도철문이 있는 것과 顧龍紋이 있는 것, 龍紋이 표현된 것이 있다. 도철문이 나타나는 고려화된 원정형 청자는 중국 고동기 정의 문양은 유지하고 있으나 기형이 원통형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몸체에는 문양곽을 두어 문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饗饗紋 圓鼎形 청자도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개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며, 다

<sup>38</sup> 최건 외, 『도기·청자 I』 KOREAN ART BOOK(예경, 2000), p.208 참조.



도 23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3.1cm, 국립중앙박물관 『토기·청자 I』 KOREAN ART BOOK 도판 90에서 전재(예경,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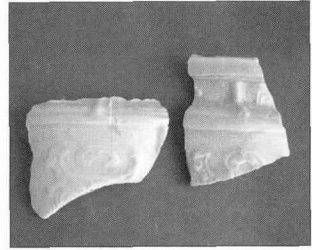
도 24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 높이 15.4cm, 일본 MOA미술관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 5 MOA 美術館 도판 4에서 전재(한국국제교류재단, 1998)

리와 몸체, 귀로 구성되어 있다. 다리는 牛頭形이며, 원통형의 몸체는 2개의 문양들을 사용하여 압출양각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sup>39)</sup> 문양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상·중·하단에 엇갈리게 문양곽을 만들고, 목에는 바탕문양으로 뇌문, 주문양으로 기문을 압출양각한 이중화의 구조로 되어 있다. 중단에는 문양곽을 중심으로 도철문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고, 상단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단은 문양곽에 뇌문만을 시문하였다.

## ② 일본 MOA미술관 소장 饜饜紋 圓鼎形 청자도 24

일본 MOA미술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기형과 문양구성은 앞에서 다루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와 같다. 그러나 구연부 측면에 뇌문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몸체 중앙에 표현된 도철의 표현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와 일본 MOA미술관 소장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다른 문양들을 사용해서 압출양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삼도4</sup>.

<sup>39)</sup> 최건 외, 앞의 책, p.210 참조.



삽도 4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MOA 美術館 〈도철문 원정형 청자〉의 문양 비교

도 25 선원사지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 동국대학교박물관 필자 촬영

③ 江華 禪源寺址 출토 饗饗紋 圓鼎形 청자편 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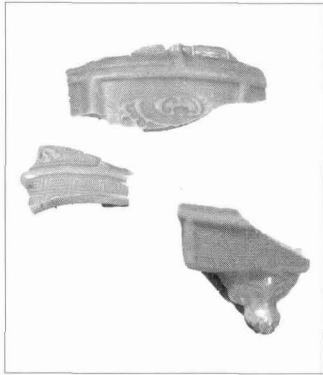
강화 선원사지에서도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선원사는 대몽항쟁기인 1246년 임시 수도였던 강화에 창건된 사찰로 왕실 및 최씨무인정권과 관련된 기록이 『고려사』에 있고,<sup>40</sup> 투각돈, 마상배, 도판 등 왕실과 관련된 청자들이 출토되었다.<sup>41</sup> 선원사지에서는 2개의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구연에서 몸체로 연결되는 부분의 편들이다. 문양은 뇌문을 바탕문양으로 사용하고 도철의 뿔과 얼굴의 일부가 돌출된 이층화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청자편들은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선원사의 창건연대를 고려하면 13세기 중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보령 원산도에서도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이 발견되었다<sup>도 26</sup>.<sup>42</sup> 원산도 발견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은 몸체 상부와 다리 부분으로 몸체 상부편은 뇌문을 바탕문양으로 하고 도철을 주문양으로 하고 있으며, 다리는 짧은 호족으로 되어 있다.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는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사당리 7호 요지, 사당리 27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다<sup>도 27, 27-1, 27-2</sup>. 강진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전체 기형이 잘 남아 있는

<sup>40</sup> 『高麗史』 卷24 世家 高宗38年 9月條, “九月壬午 幸城西門外 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 更願立都監 十六年而功畢.”; 『高麗史』 卷30 忠烈王18年 正月條, “丁巳移置先代實錄于禪源寺.”; 『高麗史』 卷129 列傳42 崔忠獻, “王命移忠獻眞于昌福寺 移眞于禪源社 祭上祭外別監 及文武官各二十員導從 如移太祖眞儀.”

<sup>41</sup> 『史蹟 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調査報告書 I—本文』(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p.461. 강화 선원사지 출토 청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尹龍二,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佛教美術』 17(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sup>42</sup> 주 36과 같음.



도 26 보령 원산도 출토 고려화된 <도  
철문 원정형 청자편>(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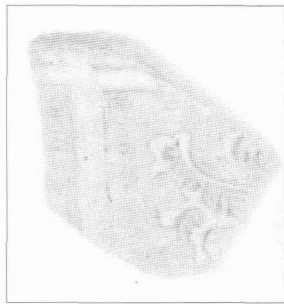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6. 5. 9)에서 전재

도 27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  
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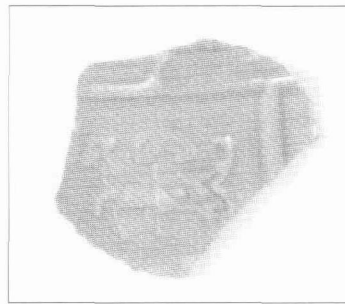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  
報告書—圖版編』

원색도판 118에서 전재

(국립중앙박물관, 1997)



도 27-1 강진 사당리 7호 요지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  
『康津의靑磁窯址』  
p.281에서 전재  
(海剛陶磁美術館,  
1992)



도 27-2 강진 사당리 27호 요지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  
『康津의靑磁窯址』  
p.321에서 전재  
(海剛陶磁美術館, 1992)

초별구이한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출토되었고,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에서는 초별구이한 도  
철문 원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사당리 27호 요지에서도 도철문이 남아 있는 원정  
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sup>43</sup> 이 출토품들을 통해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가 고려화된 도철문 원  
정형 청자의 제작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진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방제한 정형  
청자, 고려화된 방정형 청자편을 비롯해 고려화된 원정형 청자편도 출토되고 있어, 지금까

<sup>43</sup> 『康津의靑磁窯址』, p.3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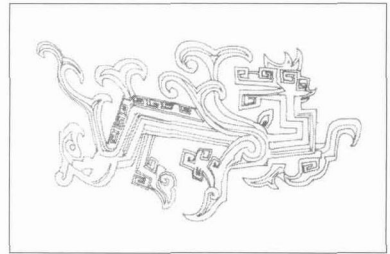
지 언급한 정형청자가 이곳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顧龍紋<sup>44</sup> 圓鼎形 청자도<sup>28</sup>

顧龍紋은 용이 머리를 돌려 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西周中期的 청동기에 유행한 문양이다.<sup>45</sup> 고룡문 정형청자는 그 동안 청자양각용 문향로, 청자양각도철문향로 등으로 불려왔으며, 제작지는 강진으로 알려져 왔다.<sup>46</sup>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고룡문 정형청자>는 앞에서 보았던 정형청자와는 기형과 문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형은 고려화된 원정형 청자와 같은 원통형이지만 위가 넓고 밑이 좁으며, 문양에 있어서도 도철이나 夔가 아닌 고룡문이 표현되어 있다<sup>삽도5</sup>. 또한 문양의 구성에 있어서도 뇌문과 같은 바탕문양 없이 주문양인 고룡문을 문양틀로 압출양각하였다. 다리에는 獸面이 있고, 반원형 수직귀의 바깥면에도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도 28 고려화된 <顧龍紋 원정형 청자>, 높이 12.0cm, 이화여대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판 51에서 전재 (이화여자대학교, 1999)



삽도 5 顧龍紋

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顧龍紋 圓鼎形 청자도<sup>29</sup>

국립춘천박물관의 소장의 <고룡문 원정형 청자>는 1972년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三和寺 뒷산 고분에서 발견된 일괄 유물 중의 하나이다.<sup>47</sup>

<sup>44</sup> 顧龍紋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용이 머리를 몸쪽으로 돌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의 용에 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룡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sup>45</sup> 朱鳳瀚, 『古代中國青銅器』(南開大學出版社, 1995), p.388.

<sup>46</sup>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 도록에는 이 청자를 <靑磁陽刻龍文香爐>로 소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명품』(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9), p.82 참조. 반면 『국립춘천박물관』 도록에는 이 청자를 <靑磁陽刻文香爐>로 소개하고 있고, 전라남도 강진에서 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02), pp.85-86.



도 29 고려화된 <顧龍紋 원정형 청자>, 높이 11.5cm, 동해시 삼화동 출토,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p.86도판에서 전재(국립춘천박물관, 2002)



도 30 고려화된 <龍紋 원정형 청자>, 높이 12.6cm,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88 도판 2에서 전재(한국국제문화협회)

이 <고룡문 원정형 청자>는 전체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룡문 원정형 청자>와 매우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기형에 있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모습이지만, 측면의 경사가 급하고, 다리는 가늘며 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을 花形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구연부의 측면에는 음각으로 당초문을 표현하였고, 방형의 수직귀에는 외면에 음각으로 사각형을 그려 넣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룡문 원정형 청자>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고룡문 원정형 청자>는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 출토품과는 문양과 기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강진지역에서는 이러한 정형청자편이 출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⑥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龍紋 圓鼎形 청자도<sup>30</sup>

고려화된 원정형 청자 중에는 고동기의 문양을 탈피하여 용문이 시문된 것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용문 원정형 청자>에는 고동기 문양에서 탈피한 용문이 나타나고 있다. 이 <용문 원정형 청자>는 몸체는 층 구분 없이 3개의 비름이 나타나고, 비름 사이에는 압출양각으로 파도와 龍을 시문하고 있으며, 구연과 몸체의 하단부에는 뇌문이 있다. 용은 역 C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은 고려시대의 동경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sup>47</sup> 동해시 삼화동 고분에서는 청자 9점, 백자 16점, 청동기 3점, 철제품 2점, 석기, 1점, 송백자 9점이 출토되었다. 삼화동 고분에 대해서는 정양모, 「삼척군 북평읍 삼화리출토 고려시대유물일괄」, 『고고미술』 129·130(한국미술사학회, 1976).



도 31 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  
고려화된 <籠紋 원정형 청자편>  
(좌)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  
調査報告書-圖版編』 도판 784에  
서 전제(국립중앙박물관, 1997)  
도 32 <청동은입사사자장식향로>.  
높이 29.8cm, 삼성미술관 리움  
(우) 『국보』 5 도판 80에서 전제  
(예경산업사, 1985)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용문 원정형 청자편이 있고, 강진 용운리 10호-II층에서도 용문 원정형 청자편이 출토되었다도31. 국립중앙박물관의 용문 원정형 청자편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의 용문 원정형 청자는 문양의 세부 표현과 구연부 문양의 차이로 볼 때, 다른 문양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고려시대 금속 정형향로와의 비교

고려시대 금속유물 중에는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 청자와 유사한 작품이 있다. 12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동은입사사자장식향로>는 중국 고동기인 方鼎을 노신으로 하고, 뚜껑에는 공을 잡고 있는 사자가 장식되어 있다도32. 이 향로는 수직 귀에 방형의 몸체, 獸面이 있는 蹄足の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의 문양은 상단에 수면문이 크게 나타나고, 하단에는 도철문으로 추정되는 수면이 나타나고 있다. 하단의 문양은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 청자와 같은 이중화의 구조를 하고 있고, 네 모서리에는 툽니형태의 扉稜이 있으며, 제족의 다리 상단에는 獸面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향로의 문양은 상대후기 方鼎의 문양이 아닌 변형된 문양이 나타나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 청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향로 뚜껑의 사자장식은 唐代에 활석제 사자장식향로가 9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섬서성, 하남성, 산둥성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것은 843년에 사망한 李郁 부부의 합장묘 출토 사자장식향로이다도33.48 북송대에는 노신에는 양련이 장식되고 뚜껑에는 사자가 오른발로 공을 잡고 있는 향로가 나타난다. 安徽省 宿松縣 北宋墓에서 출토된 이 향로는 녹유가 시유되어 있고, 노신과 대좌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



도 33 <남석제 사자향훈>, 843년,  
높이 24.0cm, 하남성 偃師 杏園寸  
李郁墓 출토(좌)  
『偃師杏園唐墓』에서 전제(中國社  
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1)

도 34 <녹유사자장식향로>, 1087년 하한,  
높이 26.3cm, 안휘성 宿松縣 北宋  
墓 출토(우), 안휘성박물관  
『中國の博物館 第二期 第五卷—安  
徽省博物館』 도판 56에서 전제  
(講談社, 1988)

다. 노신에는 3층의 앙련이 있고, 그 위에 윗면이 편평한 원반형 뚜껑 위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사자가 오른쪽으로 공을 잡고 있다<sup>도 34</sup>.<sup>49</sup> 뚜껑에 사자가 장식된 향로는 고려에서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高麗圖經』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사자장식향로는 노신에 앙련이 있거나 또는 수면이 있는 삼족에 구연에는 전이 달린 노신과 결합되기 때문에 청동은입사자장식향로와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경우 鼎을 노신으로 하고 뚜껑에 사자가 장식된 향로는 元代에 나타난다. 신안해저 출토 <청자사자장식정형향로>는 노신인 鼎은 수면이 있는 다리, 東頸의 몸체에 귀는 목에 붙은 옆귀이고, 원반형 뚜껑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사자가 왼쪽으로 공을 잡고 있다<sup>도 35</sup>. 이 청자는 같이 출토된 1323년명 목간을 통해, 1323년 또는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대에는 정을 노신으로 하고 뚜껑에는 박산향로처럼 산악이 묘사된 향로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을 노신으로 하고 뚜껑에 사자장식이나 산악이 장식된 향로는 원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동은

<sup>48</sup>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考古二隊, 「河南偃師市杏園村唐墓的發掘」, 『考古』(1996-2期), 사자장식향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王自力, 「獅子香薰」, 『故宮文物』 232(國立故宮博物院, 2002).

<sup>49</sup> 이 묘는 북송 元祐 丁卯年(1087)에 만들어졌고, 노신에 앙련받침이 있는 사자장식향로는 1087년 또는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묘에서는 경덕진요의 청백자 수주와 승반도 같이 출토되었다. 『中國の博物館』 第二期 第五卷—安徽省博物館(講談社, 1988), pp.172-173 참조.

<sup>50</sup> 『高麗圖經』 卷32 器皿三 陶爐條, “狻猊出香, 亦翡色也上爲獸下有仰蓮以承之.”



도 35 <청자사자장식정형향로>, 元代 14세기, 높이 14.5cm, 신안해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필자 촬영  
 도 36 <청동정형향로>, 높이 15.1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입사사자장식향로)는 현재의 시대 편년보다는 내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정형향로>는 다리는 蹄足, 고복형 몸체에는 중앙의 양각선을 중심으로 상단에만 夔紋이 나타나며, 목에는 4줄의 雷紋帶가 있으며, 귀는 목에 붙은 옆꺼리 되어 있다<sup>51</sup>. 그리고 구연에 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정형향로는 후대의 자료지만 『明集禮』에 규정해 놓은 향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따라서 이 정형향로는 정형화된 기형의 향로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청동정형향로와 정형청자는 鼎의 기형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문양의 구성과 기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鼎을 노신으로 하고 뚜껑에 사자나 산악이 장식된 기형은 元代에 등장하고 있어 정형청자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양식적 특징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방제와 고려화된 두 가지 형식을 바탕으로 양식변천이 이루어졌고, 방제를 시작으로 고려화된 정형청자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청자의 제작 초기에는 모본을 바탕으로 충실한 방제가 이루어졌고,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충실하게 방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방정형 청자>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방제단계의 정형청자는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 다리가 짧은 수족으로 바뀌게 되고, 문양에 있어서도 주문양인 도철과 기의 도상적 특징이 불명확해진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sup>51</sup> 『明集禮』 卷44 儀仗二 香爐, “大口細頸巨腹三足,” 文淵閣四庫全書 650, 史部 408, 政書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2(1983)), p.319.

〈도철문 원정형 청자〉와 일본 出光美術館 소장의 〈도철문 원정형 청자〉이다.

고려화가 진행되면서 정형청자는 기형과 문양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난다. 기형의 경우 방정형 청자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사다리꼴이고, 원정형 청자는 원통형으로 변화된다. 또한 다리의 모습도 獸形, 雲形, 虎足形 등 작품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양에 있어서도 기와 도철이 몸체의 상단과 하단에 표현되는 방제 단계와는 다르게 표현된다. 방정형 청자의 경우는 夔紋만이 표현되어 있고, 원정형 청자의 경우는 도철과 기가 표현되지만, 도철은 몸체의 중심에 크게 나타나고, 기는 몸체에서 구연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작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화가 되면서 정형청자는 〈기문 방정형 청자〉와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주된 기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문 방정형 청자〉의 경우, 일본 동양도자미술관과 호림박물관, 리움에 완형이 소장되어 있고, 강진 용운리 10호-II층과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최근 보령 원산도에서도 출토되어 고려시대 방정형 청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철문 원정형 청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일본 MOA 미술관에 완형이 소장되어 있고, 강진 용운리 10호-II층과 강진 사당리 7호, 27호 요지에서도 출토되었다. 또한 강화 선원사지와 보령 원산도에서도 출토되어 원정형 청자 중 가장 많은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방제 단계를 지나 고려화가 되면서 방정형 청자는 〈기문 방정형 청자〉, 원정형 청자는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정형청자는 방제한 정형청자와 고려화된 정형청자는 대다수가 동일한 문양구성 방식을 하고 있다. 즉 뇌문을 바탕문양으로 하고 주문양인 饕餮과 夔를 바탕으로부터 돌출시키는 이중화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 구조는 상대후기 청동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에서는 대부분의 정형청자에 이러한 문양 구조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 IV. 고려시대 鼎形靑瓷의 제작시기와 용도

### 1. 제작시기

강진 용운리 10호 발굴보고서에는 정형청자편이 출토되는 용운리 10호-II층의 편년을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로 추정하였다.<sup>52</sup>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용운리 10호-II층의 편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정양모는 용운리 요를 11세기로 보고 있으며,<sup>53</sup> 강경숙은 용운리 10호-II층에서 출토된 국화절지문 청자편에 주목하고 이 편들이 12세기 상감청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진전된 모습이라 하여 용운리 10호-II층을 11세기 후반-12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4</sup> 윤용이는 용운리 10호-II층이 11세기-12세기 후반에 이르는 유물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sup>55</sup> 전승창은 용운리 10호-II층에서 출토된 오리장식 뚜껑이 북송 耀州窯 출토의 오리장식 뚜껑과 조형적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용운리 10호-II층의 퇴적 형성시기를 11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였다.<sup>56</sup> 장남원은 국내외 유적 출토 압출양각 청자와 편년 보조자료를 통해 용운리 10호-II층 <가> 유형의 제작시기를 11세기 말-12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고, 용운리 10호-II층 <나·다> 유형은 12세기 중반-13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sup>57</sup>

이상에서 본 용운리 10호-II층의 편년은 대체로 11세기 말에서 12세기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용운리 10호-II층 출토 청자에 시문된 뇌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용운리 10호-II층 <나·다> 유형에서는 뇌문이 청자에 시문되고 있다. 뇌문은 음각으로 된 뇌문과 압출양각으로 된 뇌문이 사용되는데, 동물장식 향로 뚜껑의 측면에는 음각의 뇌문이 사용되고, 정형청자의 경우에는 압출양각한 뇌문이 사용되고 있다<sup>삼도6</sup>.

이러한 뇌문은 중국 송대의 요주요, 정요, 사룡구요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요주요의 경우 뇌문은 주로 북송 말기의 삼죽향로에 시문되었고,<sup>58</sup> 정요의 경우에는 북송 말기부터 금대에 제작된 완과 대접의 구연부 안쪽에 뇌문대가 장식되고, 완과 대접의 안쪽에는 식물문과 동물문이 음각이나 압출양각으로 새겨진다.<sup>59</sup> 또한 사룡구요에서도 뇌문은 남송 초기부터 12세기 중엽까지 주로 청자삼죽향로에 시문되었다<sup>삼도7</sup>.<sup>60</sup> 송대의 요주요, 정요, 사룡구요에서는 뇌문이 북송말기에서 남송초기에 주로 사용되었고, 요주요와 정요의 영향을 고려하면,

<sup>52</sup>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本文編』, p.223.

<sup>53</sup> 鄭良模,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pp.252-255.

<sup>54</sup> 姜敬淑,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시공사, 2005), pp.220-224.

<sup>55</sup>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문예출판사, 1994), pp.272-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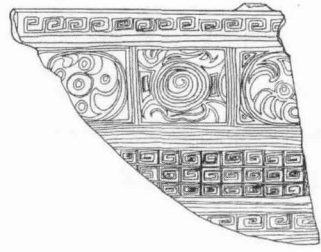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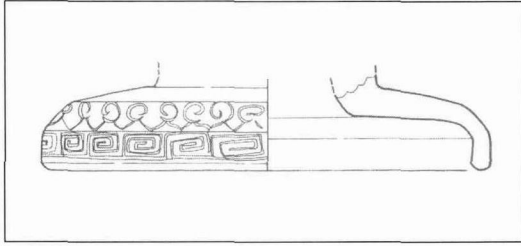
<sup>56</sup> 田勝昌, 「青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2), pp.85-86.

<sup>57</sup> 장남원,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pp.10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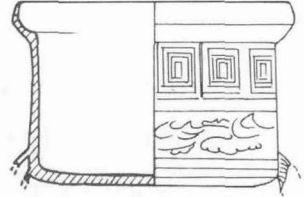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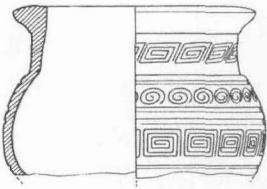
<sup>58</sup>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文物出版社, 1998), p.605.

<sup>59</sup> 穆青, 『定瓷藝術』(河北教育出版社, 2002), pp.124-147. 참조.

<sup>60</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p.349-352, 365-366.



삼도 6 고강진 용운리 10호-II층 출토 청자의 뇌문



삼도 7 중국 요주요·정요·사릉구요의 뇌문

용운리 10호-II층 <나·다> 유형에 뇌문이 나타나는 것은 12세기 전반으로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제작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선화박고도』의 편찬시기와 고려에 유입되는 시기이다. 『선화박고도』는 송 휘종 宣和年間, 즉 1119년-1125년 사이에 편찬된 청동기 도록이다. 선화 연간(1119-1125)이라는 편찬시기를 고려하면,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1125년 이후에 고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북송이 망하고 남송이 건국되는 1127년 이후 고려와 남송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1127년 이전에 『선화박고도』가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강진 용운리 10호-II층에 나타나는 뇌문과 『선화박고도』의 편찬 시기, 고려에 『선화박고도』가 유입되는 시기로 보아 1125년에서 1127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화 선원사에서 출토된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을 고려하면,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1120년대 후반 이후 강진 용운리와 사당리를 중심으로 13세기 전반까지는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정형청자의 용도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고려시대 예제 개혁 과정에서 송으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기형의 향로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정형향로를 비롯해 동물장식이 있는 동물장식 뚜껑향로, 병향로라 불리는 手爐 등 다양한 향로가 있었고, 종교나 의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고려도경』에 기록되어 있는 향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고려도경』에는 서궁이 왔던 당시에 고려에서 사용했던 향로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도경』 권30 器皿 1에는 獸爐에 관한 기록이 있다.

子母獸爐는 은으로 만들고 정교하게 만든다.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있고, 작은 짐승은 뒤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입에서 연기가 나온다. 오직 회경전과 건덕전에서 공식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한다. … 높이는 4尺이고 너비는 2尺 2寸이다.<sup>61</sup>

즉 獸爐는 높이가 4척이나 되는 대형의 향로로 會慶殿과 乾德殿에서 공식행사가 있을 때에만 건물의 중앙칸 기둥 양쪽에 놓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獸爐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獸爐는 왕실의 嘉禮에 주로 사용되고 건물의 중앙칸 기둥 앞쪽에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sup>62</sup> 이러한 설치방법은 경복궁 근정전에 고정식 청동정형향로가 설치되기 전까지 지속된다.<sup>63</sup>

『고려도경』 器皿 1의 博山爐는 연화 같은 산 모양의 뚜껑과 삼족이 달린 노신에 盆과 받침이 붙어 있고, 옷에 香煙을 쏘이는 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64</sup> 즉 박산로는 행사나 의식에 사용하는 향로가 아니라 실내에서 향연을 쏘이는 데 사용하는 향로임을 알 수 있고, 漢

61 『高麗圖經』 卷30 器皿一 獸爐, “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大獸蹲踞 小獸作攫之形 返視張口 用以出香 惟會慶乾德公會 則置于兩楹之間·高四尺 闊二尺二寸.”

62 『高麗史』 卷67 禮志9 元正冬至節日朝賀儀條, 一月三朝儀條; 『高麗史』 卷68 禮志10 大觀殿宴群臣儀條, 宣麻儀條; 『高麗史』 卷69 禮志11 上元燃燈會儀條, 仲冬八關會儀條 참조.

63 李溶振, 「朝鮮後期 鼎形香爐 研究」, 『東岳美術史學』 3(東岳美術史學會, 2002), pp.329-333.

64 『高麗圖經』 卷30 器皿一 博山爐, “博山爐本漢器也 海中有山 名博山 形如蓮花 故香爐取象 下有一盆作山海波濤 魚龍出沒之狀 以備貯湯薰衣之用 蓋欲其濕氣相箸煙不散耳 今麗人所作 其上頂雖象形而下爲三足 殊失元制 但工巧可取.”

대의 박산로와는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 卷31 器皿 2의 鼎爐는

鼎爐의 형태는 대체로 박산로와 같지만, 위에는 꽃모양의 뚜껑이 없고, 아래에는 세 발이 있다. 도관이나 사찰, 神祠에서만 쓴다. 높이는 1尺, 꼭대기의 너비는 6寸, 아래 쟁반의 너비는 8寸이다.<sup>65</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도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면, 鼎爐는 도관과 사찰, 신사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 의식용 향로로 추정되고, 높이도 1尺에 이르는 비교적 대형의 향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태가 박산로와 같다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정의 기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도경』에는 청자 향로에 대한 기록도 있다.

산예출향은 비색으로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위를 향하고 있는 연꽃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sup>66</sup>

『고려도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면 이 향로는 사자 아래에 앙련이 장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뚜껑에 동물이 장식된 청자 향로는 앙련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뚜껑에 장식된 동물도 사자를 비롯해 오리, 원앙, 구룡 등이 있다. 뚜껑에 장식된 동물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宋代 洪芻가 쓴 『香譜』에는 향로의 뚜껑에 장식되는 동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67</sup> 『향보』에는 香獸로서 산예, 기린, 원앙과 오리를 규정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동물장식 청자향로에도 산예, 기린, 오리, 원앙이 표현되어 있어, 『향보』의 香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청자향로는 종교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sup>68</sup> 『향보』의 기록과 곤릉 출토품 등을 고려하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sup>65</sup> 『高麗圖經』 卷31 器皿二 鼎爐, “鼎爐之制略如博山 上無花 下有三足 惟觀寺神祠用之 高一尺 頂闊六寸 下盤闊八寸.”

<sup>66</sup> 『高麗圖經』 卷33 器皿三 陶爐, “狻猊出香亦翡色也 上有蹲獸 下有仰蓮以承之.”

<sup>67</sup> 洪芻, 『香譜』 香之事 水浮香, “香獸, 以塗金爲狻猊, 麒麟, 鳧鴨之狀, 空中以燃香, 使煙自口出, 以爲玩好.” 文淵閣四庫全書 844, 子部 150, 譜錄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2(1983)), p.231. 洪芻는 字는 駒父이고 紹聖 元年(1094)에 進士가 되었고, 靖康年(1126)에 사망하였다.

<sup>68</sup> 백은경, 「高麗 象形靑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III장. 高麗 象形靑磁의 宗教的 배경과 소재 참조.

같다.

『고려도경』에 기록된 향로는 가례용 향로인 수로, 실내 훈향용인 박산로, 사찰과 도관, 신사에서 사용하는 종교의례용 정로 등 향로의 용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반면 정형청자는 크기와 기형을 고려하면 향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용도의 향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의 예제 개혁 과정과 송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가 받아들인 예서와 제기들은 주로 고려 왕실의 길례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淳化銘 청자제기가 태묘용 제기이고, 1117년 송에서 보낸 제기가 고려의 길례대사에 사용한 제기의 숫자와 같은 사실 등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고려시대 길례대사에 사용되었던 향로로 추정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1117년 송에 보낸 제기는 1113년에 편찬된 『정화오례』에 따라 제작된 제기였을 가능성이 많고, 휘종 연간에 제작된 政和鼎과 宣和尊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에서도 고동기에 준하는 제기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형청자는 『선화박고도』를 근거로 제작한 향로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길례대사에 사용하던 향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정형청자는 강진의 용운리 10호-II층과 사당리에서만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원사지 출토 고려화된 <도철문 원정형 청자편>의 경우, 선원사에서 길례대사를 행한 기록은 없지만, 선원사와 고려 왕실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볼 때, 왕실의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해시 삼화동 출토의 고려화된 <고룡문 원정형 청자>는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유일한 작품으로 정형청자가 민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맺음말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고려의 예제 개혁 과정에서 유입된 『선화박고도』를 모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 청자>는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그대로 방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방제한 것과 고려화된 것이 있는데, 문양은 대부분 압출양각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은 뇌문을 보조문양으로, 饗饗과 夔를 보조문양으로부터 돌출시키는 이층화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의 구조는 중국 청동기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상대후기 청동기의 문양구조를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송대의 정형청자는 삼모과 兩耳의 기형적인 특징만 유지하고 있을 뿐 기면에는 문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고려와 같이 자기로 고동기 정의 기형과 문양을 방제하는 시기는 明代 萬曆年間임을 고려하면, 중국 고동기 鼎을 자기로 제작한 것은 고려가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방제와 고려화된 두 가지 형식을 바탕으로 양식변천이 이루어졌고, 방제를 시작으로 고려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청자의 제작 초기에는 모본을 바탕으로 충실한 방제가 이루어졌고, 방제 단계를 지나 고려화가 진행되면서 방정형 청자는 〈기문 방정형 청자〉, 원정형 청자는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강진의 용운리와 사당리에서만 제작되었는데, 특히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방제한 정형청자와 고려화된 정형청자가 대부분 출토되고 있어 이곳이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주된 제작지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용운리 10호-II층에서 雷紋이 나타나는 시점과 『선화박고도』의 편찬 시기와 유입시점을 고려하면, 제작시기는 1125년에서 1127년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강화 선원사지 출토편을 통해 13세기 중반까지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고려의 예제 개혁 과정과 송에서 유입된 서적과 제기들을 통해 향로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예제 개혁과 송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가 받아들인 예서와 제기들은 주로 고려 왕실의 길례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순화명 청자가 태묘용 제기이고, 1117년 송에서 보낸 제기가 고려의 길례대사에 사용한 제기의 숫자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청자는 고려시대 길례대사에 사용하던 향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정형청자가 상대후기 정의 기형과 문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1117년에 송에서 보낸 제기들이 『정화오례』에 따라 제작된 제기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고동기에 준하는 제기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형청자는 『선화박고도』를 근거로 길례용 향로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key words) — 鼎形靑瓷(Ding-shaped Celadon), 宣和博古圖(Xuanhebogutu), 仿製(imitating model), 高麗化(Goryeo style), 二層花(Double layered design), 香爐(Incense Burner)

12세기 전반 고려에서는 徐兢이 『高麗圖經』에 기록한 것처럼 翡色이 나타나는 우수한 청자를 제작하였고, 송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청자에 나타난 송대 자기의 영향은 주로 耀州窯와 汝窯, 定窯 등의 북방요와 越州窯 등 남방요의 영향이고, 구체적으로는 제작기술과 기형, 장식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청자에는 북송의 자기뿐만 아니라 중국 고동기의 영향도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古銅器 鼎을 방제한 鼎形靑瓷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고려의 예제 개혁 과정에서 유입된 『선화박고도』를 모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방제한 <도철문 방정형청자>는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그대로 방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방제한 것과 고려화된 것이 있는데, 문양은 모두 압출양각으로 시문하였다.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보면, 방제한 도철문 정형청자와 고려화된 도철문 정형청자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문양들을 사용해 문양을 시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출양각으로 시문한 문양은, 뇌문을 보조문양으로 하고 주문양인 饗盤과 夔를 보조문양으로부터 돌출시키는 二層花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의 구조는 중국 청동기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상대후기 청동기의 문양구조를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송대의 정형자기는 삼족과 양이의 기형적인 특징만 유지하고 있을 뿐 기면에는 문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고려와 같이 자기로 고동기 정의 기형과 문양을 방제하는 시기는 명대 만력연간임을 고려하면, 중국 고동기 鼎을 자기로 제작한 것은 고려가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방제와 고려화된 두 가지 형식을 바탕으로 양식변천이 이루어졌고, 방제 단계를 거쳐 고려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청자의 제작 초기에는 모본을 바탕으로 충실한 방제가 이루어졌고,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충실하게 방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철문 방정형청자>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방제 단계를 지나 고려화가 진행되면서 방정형 청자는 <기문 방정형 청자>, 원정형 청자는 <도철문 원정형 청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강진의 용운리와 사당리에서만 제작되었는데, 특히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방제한 정형청자와 고려화된 정형청자가 대부분 출토되고 있어 이곳이 고려시대 정형청자의 주된 제작지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정형청자는 용운리 10호-II층에서 雷紋이 나타나는 시점과 『선화박고도』의 편찬되는 시기와 유입시점을 고려하면, 제작시기는 1125년에서 1127년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강화 선원사지 출토품을 통해 13세기 중반까지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형청자는 고려의 예제개혁 과정과 송에서 유입된 서적과 제기들을 통해 향로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예제개혁 과정과 송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가 받아들인 예서와 제기들은 주로 고려 왕실의 길례대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순화명 청자제기가 태묘에 사용된 제기이고, 1117년에 송에서 보낸 제기가 고려의 길례대사에 사용한 제기의 숫자와 같은 사실 등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형청자는 고려시대 길례대사에 사용된 향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려시대 정형청자가 상대후기 정의 기형과 문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1117년에 송에서 보낸 제기들이 『정화오례』에 따라 제작된 제기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고동기에 준하는 제기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형청자는 『선화박고도』를 근거로 향로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 *Ding*-Shaped Celadon Vessels of the Goryeo Period

Lee Yongjin\*

In the early 12th century Goryeo made the fine celadon that was green inclining to jade green, and was influenced by Song China. Celadon of Goryeo was affected by not only china but also Chinese bronze. The representative vessel is *ding* (鼎).

Ding-shaped celadon of Goryeo is the vessel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ocess of state ritual protocol Goryeo. Ding-shaped celadon is to imitate Chinese bronze ding on the basis of *Xuanbebogutu* (宣和博古圖). The rectangular ding-shaped celad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is to reproduce “Shang shaofu ding (商召夫鼎)” of *Xuanbuobogutu*.

A ding-shaped celadon is divided into two according to vessel type and pattern ; one is the imitative ding-shaped celadon, another is the Goryeo style ding-shaped celadon. The decoration of ding-shaped celadon applies relief design by molded design. The relief design method by molded design is applicable to all the ding-shaped celadons. The composition of design follows the style of the late Shang period ding. In other words, main motifs and spiral background become separated and motifs rise in bold relief. On the contrary, ding-shaped china of Song China keeps only vessel type of ding. In addition the period that imitated Chinese bronze ding including vessel type and design as a porcelain in China was the Wanli era of Ming China. So

---

\* Curator, Dongguk University Museum

Goryeo was prior to China in making ding-shaped china.

Yongun-ri (龍雲里) and Sadang-ri (沙堂里) in Gangjin (康津) are the main place that produced ding-shaped celadon. Especially the 10-II stratum kiln no. 10 at Yongun-ri kiln seems to include all kinds of ding-shaped celadon.

Considering the fret design in the 10-II stratum kiln no. 10 at Yongun-ri kiln and the time of compilation of *Xuanhuobogutu*, the time of making ding-shaped celadon is presumed after A.D. 1125. Also through celadons excavated at Seonwon-sa site, ding-shaped celadon supposed to be made after A.D. 1125 to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In the process of state ritual protocol of Goryeo, she referred to ritual protocol of Song China, and accepted ritual vessel of Song China relevant to sacrificial rites (*gillye*). Also the ritual vessels that Song China sent to Goryeo in A.D. 1117 corresponded with the number of ritual vessels for Sacrificial Rites of Goryeo Dynasty. From this point of view, ding-shaped celadon was a ritual vessel used as a incense burner for Sacrificial Rites of Goryeo Dynasty.